

쌍용차 노사 전격 합의

정리해고자 '52% 희망퇴직 · 48% 무급휴직'

노조 도장 2공장 점거 농성 76일만에 풀려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이 6일 전격 타결됐다. 노조가 지난 5월 22일 도장 2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76일 만이다. 협상 타결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농성을 풀었다.

양측은 전체 정리해고자 974명의 48%에 대해 무급휴직시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52%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분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직 및 영업직전환 비율이 당초 사측이 최종안에서 제안했던 40%에서 48%로 8% 포인트 높아졌다.

회사 소속으로 남게 되는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며, 희망퇴직과 분사 대상자는 정리해고에 포함된다.

양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 고발을 취하하거나 최소화하는데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 박영태 법정관리인과 노측 한상균 노조위원장은 이날 정오 패택공장 본관과 도장공장 사이 '평택구역' 내에 마련된 컨베이어박스에서 만나 1시간여의 '마지막 대화'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결국, 전원 고용 원칙을 고수해 온 노측이 사측 최종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 됐다. 그러나 사측은 당초 974명 전원을 정리해고할 방침이었지만 점거농성에 부딪혀 절반

가까이 고용관계를 유지, 경영정상화에 부담을 안게 됐다.

협상타결은 송명호 평택시장과 원유철·정장선·권영길의원 등 중재단이 무급휴직 50%, 정리해고 50% 안을 제시하며 양측을 설득하고, 쌍용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도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을 노측에 권유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측은 4~5일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거점인 도장2공장에 고립된데다 협력업체의 조기 파산신청 등 외부 압박과 5일 하루에만 110명에 달하는 노조원이 농성장을 이탈하며 내부 동요가 심하게 일자 결국 협상장에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는 5일 노조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밤 늦게까지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집행부 회의를 열어 대화 재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농성을 풀고 나오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신원확인 작업을 벌여 체포영장 발부된 노조 간부 21명 등 노조원 100여명을 입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현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노조원들을 최대한 선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간 갈등이 일단 해소됨에 따라 곧 체권단과 투자자 물색에 나설 방침이다. 무겁고 비싼 프레임 차체구조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편중된 제품 포트폴리오로 가뜩이나 판매가 부진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망마저 무너지기 직전인 쌍용차로서는 새로운 대주주없이 회생을 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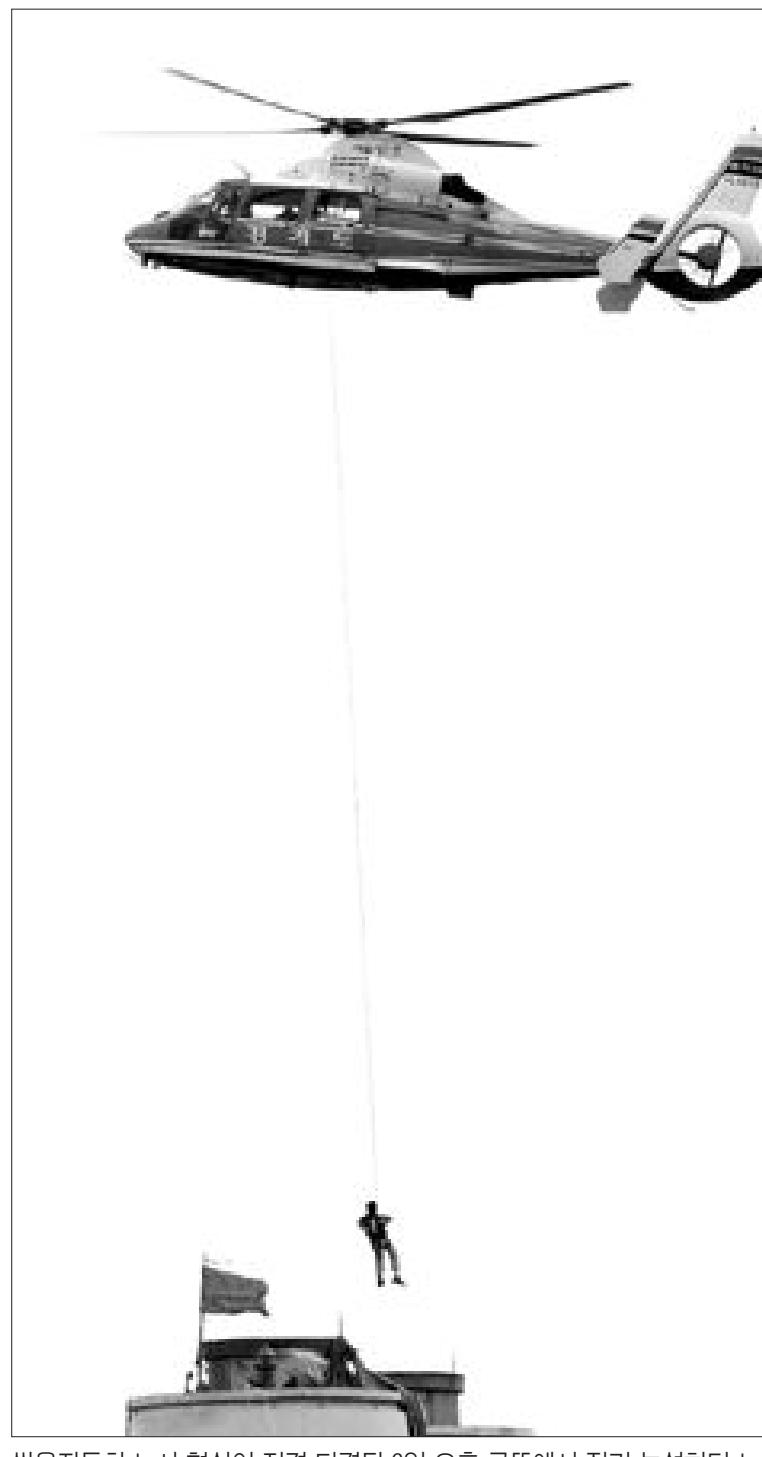
실제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쌍용차처럼 프레임 차체구조가 SUV 제품 중심인 자동차 브랜드인 랜드로버나 지프, 헤더 등도 대부분 판매가 부진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렵다.

세계 자동차업계의 상황을 봤을 때 쌍용차의 독자생존이 어렵고 회생계획에 따른 구조조정과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제3자 매각추진을 병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뚜렷한 매수 희망자만 나선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검토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러시아, 인도 등지의 몇몇 자동차 기업들이 구조조정계획의 순조로운 이행을 전제로 쌍용차에 관심을 가졌지만 현재는 이미 불투명해진데다 매수 희망자들이 정부나 쌍용차에 새로운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높다.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이 전격 타결된 6일 오후 굴뚝에서 점거 농성하던 노조원이 헬기 의해 구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불구경도 모자라 비행기 구경(?)

“原電, 전략수출업종 육성”

한승수 총리 … 지역 녹색성장동력으로 발전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원자력 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전략수출업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원자력이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영광원전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원전 6호기 전력생산 현장과 중앙제어실, 터빈 룸 등을 둘러보고 전북으로 이동해 1박2일 동안의 충청·호남 민생탐방 일정에 들어갔다.

영광원전 방문 뒤 전북 고창군청을 찾아 희망 근로 프로젝트 등을 점검하고 정부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연말 준공되는 ‘가속기 종합연구동’을 시찰했다.

오후에는 충남 논산시청 방문에 이어 연무대에서 장병을 격려하고 대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학 세계총회 개회식에도 참석한다.

7일에는 전북 진안군청과 임실 호국원에 들른 뒤 장수군청에서 현안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담양 자전거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등 이를 동안 전북과 전남, 충남을 오가며 민생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왜 저한테 그러세요?

국민 가장 화 나게 하는

공무원 7가지 태도 꼽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규정이 원래 그래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폐번 공무원의 민원 처리 안내서인 ‘고객감동 매뉴얼’을 무관심, 무시, 냉漠, 어린애 취급, 로봇화, 규정 제일, 발뺌을 국민을 가장 화나게 하는 공무원의 7가지 태도로 꼽았다.

즉 ▲나와 상관없다는 태도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태도 ▲차갑고 통증스러운 태도 ▲고객을 어린애처럼 디루는 태도 ▲기계적인 인사나 응대 ▲규정만 따지기 ▲별별이며 업무를 떠넘기기를 접할 때 민원인은 언짢아지거나 불쾌해진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신안에 대규모 조류발전단지

2016년까지 260MW급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신안 해역에 대규모 조류발전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신안군은 2016년까지 신안 해역에 조류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남동발전주, 아포스코건설 등과 260MW급 조류발전 단지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안군은 2012년까지 해양기초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 2016년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797GW의 전력을 생산, 전남도내 16만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조류발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원”이라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권 94억원, 연간 17만t의 석유 대체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군 조류발전기자 wncho@

‘송아지 생산 안정기금’ 농가 지급

마리당 14만7천원 보전

최근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송아지 생산 안정기금’에 기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 송아지 1마리당 14만7천 원의 보전금이 지급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만 4~5개월에 해당하는 송아지의 최근 거래 가격이 1마리당 150만 3천 원으로 정부가 올해 고시한 송아지 생산기준 가격인 165만 원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아지 생산 안정기금’ 기입 농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송아

지 1마리당 거래가격과 정부고시 기준가격의 차액인 14만7천 원을 지금 받게 된다.

지난해 9~10월에 테어난 송아지에 대해 가격 보전금이 지급되며, 도내에서는 총 1만1천408마리, 6천800농가에 총 16억 원이 지급된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축산물 개방에 대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가가 분담해 기금을 조성한 후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만 4~5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기입농가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최권일기자 cki@

나로호 발사연기 ‘기술적 이슈’

보조펌프 관련 수치 이상 인듯

교과부 정책관 밝혀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 연기 사유로 알려진 ‘기술적 이슈’는 엔진 보조펌프와 관련한 수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관제국장은 6일 오후 나로호 발사준비와 관련한 브리핑에

“리시아 측의 1단 연소시험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기술적 이슈’는 측정 데이터 중 엔진에 있는 보조펌프의 회전수가 정상치보다 많은 특이값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연소시험 결과를 흔들어 놓은 데 대해 “당초 러시아

측은 예정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연소가 진행돼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명확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특이값의 원인이 측정센서 오류인지 또는 물리적 현상에 의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러시아 측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현재 러시아의 관련 기술진들이 시험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우리 측에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 측에서 결과를 제시하면 나로호 발사준비 검토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가방을 찾습니다

(검정색 서류가방)

• 분실 일시 : 2009년 6월 4일 밤 10시~12시 경

• 분실 장소 : 농성역 한국전력 앞

농성지하차도 근처

상무로(농성역~운천역)인근

또는 상무지구(롯데마트)

• 분실내용물 : 신분증, 개인연락처

*업무상 필요한 서류

연락주신분께

현금 보상 또는 충분한 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꼭 연락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 019-637-6260

•이메일 : k5041107@hanafos.com

광고접수안내

• ☎ (062) 227-9600
• FAX: (062) 227-9500

건설업 양도 양수 공고

이번년도 주택양도는 경밀 원활한 경매를 목표로 전국에 인한 원활한 경매를 위하여 양도하고자 건설업체와 세 흐로 및 등록 시장구역 제 185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는 원래 계약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1) 양도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2) 양수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3) 원자재(부자재)의 의무양수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4)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5) 양수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6)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7)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8)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9)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0)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1)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2)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3)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4)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5)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6)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7)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8)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

19) 원자재(부자재) : 원자재(부자재)(주) 1500호